

# 2004 OECD 교육지표와 한국교육의 이해

김 광 호

주OECD대표부 1등서기관  
khkim01@mofat.go.kr

한국은 196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룹에 속하였으나 2000년대에 이르러 OECD 회원국 중 10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로 성장하였다. OECD에 의하면 한국은 2001년에 GDP의 8.2%를 교육에 지출하는 등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많은 교육 투자를 통하여 짧은 기간 안에 국민들의 고등학교 졸업률과 고등교육 취학률을 OECD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렸다고 한다. 2004년 OECD의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15세 학생들의 성취도 수준은 세계 최상위이다. OECD 교육지표로 본 한국 고등교육의 학습환경과 경쟁력은 미흡한 편이나 25-64세 핵심 노동인구의 생산성을 설명해주는 고등교육 졸업인구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으며 젊은 세대일수록 학력수준이 높아 미래전망을 밝게 해준다. OECD는 한국을 가르켜, 교육투자가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자주 인용한다.

## 1. 들어가는 말

OECD 교육국은 2004년 9월, *Education at a Glance*를 발표하면서, “한국은 높은 교육투자를 통하여 지난 40년간 획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라고 소개하였다. 1960년대에 한국의 경제수준은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이나 남미 여러 나라 수준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나라들이 40년이 지난 2000년대까지 별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 반면, 한국은 높은 교육투자를 통한 인적자원 개발을 바탕으로 OECD 30개 회원국 중 20위의 1인당 국민소득과 10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로 성장하였다는 것이다.

OECD 교육지표에 의하면, 한국은 2001년에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인 GDP의 8.2%를 교육비로 지출하였다. 같은 해 OECD 회원국 전체의 교육비 지출은 GDP의 6.2%였다. 이러한 높은 교육투자를 바탕으로 한국은 노동인구 중 고등학교 졸업률이 OECD 1위, 고등교육 졸업률은 OECD 3위를 달성하였다. 1960년대의 고등학교 졸업률 OECD 24위 수준, 고등교육 졸업률 OECD 20위 수준에 비하여 놀라운 성장이다.

질적인 측면에서 2000년 15세 학생들의 성  
인생활 준비도를 세 가지 핵심영역에서 국제  
비교 측정한 국가학생평가프로그램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결과, 읽기 6위, 수학 2위,  
과학 1위로 우수할 뿐 아니라, 상하층간 격차  
가 OECD 국가 중 가장 작아 품질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물론 국  
내에서 최상층 학생비율이 경쟁국들보다 작  
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2004년 12월  
에 발표되는 PISA 2003 결과에서도 우수한 성  
적이 계속 유지될지 주목된다. OECD는 높은  
교육투자로 이룩한 한국학생들의 우수성과  
전반적으로 높은 국민 학력수준이 한국의 경  
제성장을 뒷받침한 것으로 설명한다.

본고에서는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4*의 교육지표들을 통하여 한국교육을 G8  
국가들과 비교함으로써 한국교육의 위치를

이해하고자 한다.

## 2. 학습결과에 관한 지표

### 가. 25~6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비율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하려면,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  
상이 필수적이다. 선진국들은 인구나 노동참  
가율을 늘리는 데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노동생산  
성 향상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다. 핵심 근  
로인력인 25~64세 인구 중 대학 이상의 학력  
을 가진 인구의 비율은 국민들의 노동생산성  
을 가장 잘 설명한다. 미국, 일본, 캐나다의 경  
우, 25~64세 인구 중에는 고학력자들이 전  
연령대에 골고루 분포되어 국민 교육수준이

<표 1> 25~64세 인구 중 고등교육 이수 인구비율(2002년)

(단위: %)

	전문대					대학 이상				
	25~64	25~34	35~44	45~54	55~64	25~64	25~34	35~44	45~54	55~64
캐나다	22	25	23	21	16	21	26	20	20	16
프랑스	12	17	12	9	6	12	19	11	10	9
독일	10	8	11	11	10	13	13	15	14	11
이탈리아	-	-	-	-	-	10	12	11	10	7
일본	16	25	20	12	7	20	25	25	19	11
한국	8	15	7	2	1	18	26	21	11	8
스페인	7	12	7	4	2	17	25	18	13	8
영국	8	8	9	8	7	19	23	18	18	13
미국	9	9	10	10	7	29	31	29	30	26
OECD	8	9	8	7	5	16	19	16	14	11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4*, 표 A3.3.

전반적으로 높다. 한국은 25~64세 인구의 교육수준이 높은 편에서 양적으로 풍부한 고급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25~64세 인구 중 대학 이상 학력을 소지한 인구는 OECD 평균보다 높으며 젊은층일수록 학력이 높다. 이러한 인구구조는 학력이 낮은 인구가 노동시장에서 빠져 나가는 대신, 새로 들어오는 젊은층은 학력수준이 높아 인구 전체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구조이다. 반면 45~64세 인구들의 학력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어서 이들에게 평생학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의 질이 더 개선되고 성인들의 재교육을 통하여 노동생산성 향상에 성공한다면, 한국경제의 앞날은 밝다고 할 수 있다.

### 나. 이공계 전공자비율

선진국들의 산업구조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위주로 되어 있으며, 대학들은 그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 한국의 산업구조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이행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이상 학력 소지자 중 공학 전공자비율은 2002년 현재 27.4%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3.3%보다 높으며 물리, 수학, 전산 등 전공자비율도 높은 편이다. 이를 볼 때, 한국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란 말은 과장된 면이 있다. 그보다 사회적 보상체제에 기인한 분야별로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 다. 15세 학생들의 능력- PISA 2000 결과

OECD는 2000년부터 PISA를 통하여 3년마다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 등 기본능력을 국제적으로 비교 측정한다. 15

(표 2) 대학 이상(Tertiary type A) 졸업자 전공비율(2002년)

(단위: %)

	교육	인문 예술	사회 경영법	서비스	공학	농업	보건 복지	생명 과학	물리	수학 통계	전산	기타
캐나다	-	-	-	-	-	-	-	-	-	-	-	-
프랑스	9.4	17.0	38.6	3.1	12.5	0.3	2.7	5.8	4.9	2.5	3.0	0.3
독일	8.0	14.7	27.4	1.8	17.6	1.9	15.2	3.4	5.0	1.7	3.3	-
이탈리아	7.4	13.1	36.6	4.6	15.2	2.0	13.2	3.3	1.6	2.0	0.7	0.3
일본	5.8	18.2	36.8	1.8	21.2	3.3	5.7	4.7	-	-	-	2.6
한국	5.2	21.4	22.3	2.9	27.4	2.6	7.1	2.1	3.5	1.9	3.5	-
스페인	14.2	10.0	32.9	3.6	14.3	2.9	12.0	2.5	3.1	1.2	3.2	0.1
영국	11.4	16.4	29.5	1.1	10.1	1.1	12.4	6.2	4.8	1.4	5.7	-
미국	13.2	14.4	41.4	3.5	6.3	2.3	9.6	3.7	1.4	0.9	3.4	-
OECD	12.9	11.6	32.3	2.9	13.3	2.2	12.9	2.9	2.8	1.0	3.9	1.7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4, 표 A4.1.

세는 각국에서 9~10년의 의무교육을 마친 때 이므로 이들의 능력측정결과는 각국 의무교육체제의 효율성을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PISA 2000 결과를 보면 평준화정책 때문에 학력이 떨어졌다는 국내 논의와 달리, 한국의 고1인 15세 학생들의 학력은 읽기 6위, 수학 2위, 과학 1위 등으로 세계 최고수준이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학생들보다 월등히 우수하다. 2004년 12월에 발표될 PISA 2003 결과에서도 한국학생들의 강세가 계속 될지 주목된다.

현저하게 낮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한국 여성들의 취업률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뒷받침하는 사회적인 인식과 유아교육과 보육체제가 미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많은 여성 고급노동력이 사장되고 있다. 반면에 앞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다면 인구정체에 불구하고, 여성 노동력 공급 증대에 힘입어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25~64세 인구의 교육수준별 취업률**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취업률도 높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한국의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취업률은 2002년 현재 전문대졸 56%, 대졸 이상 56%에 불과하여 OECD 평균 76%, 78%보다

**마. 학력별 소득수준 비교**

고졸을 100으로 할 때 대학 이상 학력소지자들의 보수수준은 추가적인 교육으로 얻어지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나타낸다. 미국은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들의 소득수준이 고졸 대비 195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고급인력들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제를 가지고 있다.

〈표 3〉 15세 학생들의 능력들(OECD PISA 2000 database)

	읽기	수학	과학
캐나다	534	533	529
프랑스	505	517	500
독일	484	490	487
이탈리아	487	457	478
일본	522	557	550
한국	525	547	552
스페인	493	476	491
영국	523	529	532
미국	504	493	499
OECD	499	498	502

주: 평균 500점, 표준편차 100.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4, 표 A6~7.

〈표 4〉 25~64세 인구의 교육 수준과 취업률(2002년)

(단위: %)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전체
캐나다	남	82	86	86	81
	녀	68	78	79	69
프랑스	남	83	88	86	79
	녀	71	80	80	64
독일	남	63	84	88	77
	녀	54	78	80	62
이탈리아	남	82	-	88	77
	녀	61	-	77	46
일본	남	89	94	94	89
	녀	60	62	68	60
한국	남	87	90	88	86
	녀	53	56	56	56
스페인	남	83	88	87	81
	녀	58	68	76	48
영국	남	88	88	90	82
	녀	77	84	86	72
미국	남	80	86	89	82
	녀	68	77	79	69
OECD	남	83	88	89	81
	녀	66	76	78	62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4, 표 A10.1a.

〈표 5〉 고졸대비 소득수준 비교(2002년)

(단위: 고졸= 100)

	연도	중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
캐나다	2001	79	115	177
프랑스	2002	84	125	167
독일	2002	78	120	161
이탈리아	2000	78	m	138
한국	1998	78	106	147
스페인	2001	78	95	141
영국	2001	67	128	174
미국	2002	71	118	195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4, 표 A11.1a.

이는 개인들이 고등교육을 받으려는 동기를 제공하며, 국가들마다 고등교육 취학률을 높이려는 전략적 목표를 정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2010년까지 오스트리아는 해당 연령대 국민들의 고등교육 취학률을 33% 수준까지, 핀란드는 70%, 독일은 40%, 스웨덴은 50%, 영국은 50%까지 높이려는 고등교육 취학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OECD 전체의 77% 수준이며, 연간 유아교육비는 1,913달러로 OECD 전체 4,490달러의 43% 수준이다. 고등교육비는 6,618달러로 OECD 전체 1만 2,319달러의 54% 수준이다. 유아교육과 고등교육비가 매우 영세함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학생 1인당 연간 고등교육비가 2만 2,234달러로 세계 최고수준이며, 이는 역시 세계 최고수준인 미국의 고등교육을 뒷받침하고 있다.<sup>1)</sup>

### 3. 교육에 투자된 재원

#### 나. GDP 대비 교육비 지출비율

##### 가. 교육기관별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

한국은 2001년 사부담비율 3.4%를 합하여 OECD 최고인 GDP의 8.2%를 교육에 투자하였다. 사부담 교육비는 학생 수업료 등으로 정

한국의 학생 1인당 연간 초·중등교육비는

(표 6) 교육기관별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2001년)

(단위: 달러 PPP<sup>2)</sup>)

	유아교육(3+)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캐나다	m	m	m	m
프랑스	4,323	4,777	8,107	8,837
독일	4,956	4,237	6,620	10,504
이탈리아	5,972	6,783	8,258	8,347
일본	3,478	5,771	6,534	11,164
한국	1,913	3,714	5,159	6,618
스페인	3,608	4,168	5,442	7,455
영국	7,595	4,415	5,933	10,753
미국	8,522	7,560	8,779	22,234
OECD 평균	4,490	4,819	6,688	12,319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4, 표 B1.1.

- 1) 미국은 중국 상하이 교통대 고등교육연구소가 발표한 2004년 세계 100대 대학 중 51개, The Times가 발표한 세계 50대 대학 중 20개를 보유하는 등 강세이다. 한국의 대학들은 아직 이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 2) PPP(Purchasing Power Parities)로 환산한 달러를 말하는데, 국가간 물가수준의 차이를 제거한 화폐단위로, 국가간 GDP를 비교할 때 쓰인다. 2001년의 한국의 1달러 PPP는 732원이었다.

부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민자동원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은 높은 비율의 사부담 교육비 지출에 잘 나타난다. OECD는 한국이 이러한 높은 교육투자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완전취학을 달성하였고, 고등교육 취학률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올리는 등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1960년대에 아프가니스탄이나 남미 여러 나라와 비슷

한 사회, 경제수준에서 2000년대에 이르러 획기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사례로 자주 인용한다. 미국은 사부담비율 2.3%를 포함하여 GDP의 7.3%를 교육에 지출하였다. 10조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GDP 규모를 생각할 때, 엄청난 금액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8 참고).

〈표 7〉 GDP 대비 교육비 지출비율(2001년)

(단위: %)

	공공	민간	합계
캐나다	4.9	1.3	6.1
프랑스	5.6	0.4	6.0
독일	4.3	1.0	5.3
이탈리아	4.9	0.4	5.3
일본	3.5	1.2	4.6
한국	4.8	3.4	8.2
스페인	4.3	0.6	4.9
영국	4.7	0.8	5.5
미국	5.1	2.3	7.3
OECD 평균	4.8	1.4	6.2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4, 표 B2.1a.

〈표 8〉 국가별 GDP 현황(2003년)

	인구 (2003, 1천 명)	GDP 2003		Per Capita GDP		GDP 성장률 1993~2003
		10억 달러(PPP)	10억 달러	10억 달러(PPP)	10억 달러	
캐나다	31,630	984.3	853.8	31,000	26,900	3.6
프랑스	59,767	1,708.9	1,757.5	27,800	28,600	2.1
독일	82,502	2,171.1	2,403.1	26,300	29,100	1.4
이탈리아	57,478	1,514.7	1,468.3	26,100	25,300	1.7
일본	127,619	3,571.4	4,300.9	28,000	33,700	1.3
한국	47,925	974.6	605.4	20,300	12,600	5.2
스페인	41,874	946.0	838.6	23,200	20,500	3.2
영국	60,483	1,720.3	1,795.0	29,000	30,200	2.9
미국	291,049	10,933.5	10,933.5	37,600	37,600	3.2
OECD 합계	1,153,846	29,983.7	29,608.7	26,000	25,600	2.6

자료: 2004 OECD in Figures

**다. 고등교육 투자**

지식집약산업과 첨단기술산업이 주축이 되는 지식기반경제에는 고급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데, 이들은 고등교육을 통하여 길러진다. 고등교육은 국민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개인들에게 더 큰 소득을 누리게 하므로, 수익자가 고등교육 수업료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유럽국가들은 이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현실적으로 사부담을 통한 고등교육 재원의 추가적인 확보는 고등교육의 공급을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에게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미국은 사부담 1.8%를 포함한 GDP의 2.7%를 고등교육에 투자하여 고등교육을 뒷받침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등이 GDP의 0.9~1.2%를 고등교육에 지출하는 것과 비교된다. 한국은 사부담

비율 2.3%를 포함하여 GDP의 2.7%를 고등교육에 지출하여, 고급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라. 유아교육과 보육비 지출**

2001년 현재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비 지출은 GDP 0.1%로 OECD 전체의 0.5%보다 매우 낮다. 유아교육과 보육은 취학 전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발달시기로, 이 시기에 적절한 기초를 형성하지 못한 아동들은 장차 학교교육에서 누적적인 저학력, 대학진학 실패, 실업, 저소득 취업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을 가진다. 따라서 정부의 조기 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영역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뒷받침하는 기본조건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유아교육과 보육비의 49.4%를 개인들이 부담하는 데, 부모의 소득수준이 아직 낮은 유아기에 교육비를 개인들이 부담하

**<표 9> GDP 대비 고등교육 지출비율(2001년)**

(단위: %)

	공공	민간	합계
캐나다	1.5	1.0	2.5
프랑스	1.0	0.1	1.1
독일	1.0	0.1	1.0
이탈리아	0.8	0.2	0.9
일본	0.5	0.6	1.1
한국	0.4	2.3	2.7
스페인	1.0	0.3	1.2
영국	0.8	0.3	1.1
미국	0.9	1.8	2.7
OECD 평균	0.9	0.9	1.8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4, 표 B2.1b.

는 것은 저소득층에 더 불리하게 작용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저소득층 여성들은 유아교육비 개인부담과 경제활동 참여 제약으로 인한 이중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사회적 형평성 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며, 궁극

적으로 공유아교육과 보육체제가 필요하다. 정부 부는 GDP의 1%를 유아교육과 보육비로 지출 하라는 EC의 권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은 아동의 평생학습의 기초를 형성할 뿐 아니라, 유아교육과 보육 종사자 고용을 창출하며,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표 10> GDP 대비 교육단계별 지출비율(2001년)

(단위: %)

	취학 전 (3+)	초·중등 직업교육				고등교육			기타 지출 포함 전체
		전체	초중	고	직업	전체	전문대	대학 이상	
캐나다	0.2	3.4	-	-	-	2.5	1.1	1.5	6.1
프랑스	0.7	4.2	2.7	1.5	-	1.1	0.2	0.8	6.0
독일	0.6	3.6	2.2	1.2	0.2	1.0	0.1	1.0	5.3
이탈리아	0.5	3.7	2.2	1.4	-	0.9	n	0.9	5.3
일본	0.2	2.9	2.0	0.9	-	1.1	0.1	1.0	4.6
한국	0.1	4.6	3.1	1.4	-	2.7	0.7	2.0	8.2
스페인	0.5	3.2	3.2	-	-	1.2	0.2	1.1	4.9
영국	0.5	3.9	1.3	2.6	-	1.1	-	-	5.5
미국	0.5	4.1	3.1	1.0	-	2.7	-	-	7.3
OECD 평균	0.5	3.8	2.6	1.2	0.1	1.8	-	-	6.1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4, 표 B2.1c.

<표 11> 유아교육비 공사 지출비율(2001년)

(단위: %)

	공부담	민간 재원			
		개인 부담	기타 사부담	사부담 전체	보조 사부담
캐나다	91.4	4.1	4.6	8.6	m
프랑스	95.9	4.1	n	4.1	n
독일	62.3	-	-	37.7	n
이탈리아	97.0	3.0	n	3.0	n
일본	50.4	42.1	7.6	49.6	m
한국	48.7	49.4	1.9	51.3	0.4
스페인	83.4	16.6	m	16.6	n
영국	95.7	4.3	n	4.3	a
미국	68.1	31.9	n	31.9	m
OECD	81.3	13.7	1.9	18.7	0.1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4, B3.2a.

지원하므로, OECD는 이를 교육정책만이 아닌, 종합적인 사회, 경제정책으로 보고 있다.

**라. 비목별 교육비 지출**

한국의 교육비 중 자본지출비율이 21.3%로

OECD 8.4%보다 높다. 이는 한국에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의 시설과 학급증설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운영비 지출 중 교사/교수 보수는 나라를 막론하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고등교육비 비목별 지출도 비슷한 사정을 보여준다.

(표 12) 초·중등직업교육비 비목별 지출비율(2001년)

(단위: %)

	전체 지출비율		운영비 지출			
	운영	자본	교사보수	직원보수	전체 보수	기타 운영
캐나다	96.8	3.2	62.4	15.6	77.9	22.1
프랑스	91.7	8.3	-	-	78.9	21.1
독일	92.4	7.6	-	-	85.2	14.8
이탈리아	94.7	5.3	63.8	17.0	80.8	19.2
일본	88.9	11.1	-	-	87.7	12.3
한국	78.7	21.3	61.7	7.8	69.5	30.5
스페인	93.5	6.5	76.0	9.9	85.9	14.1
영국	92.2	7.8	53.0	20.9	73.9	26.1
미국	88.1	11.9	55.7	25.3	81.0	19.0
OECD	91.6	8.4	64.2	14.4	80.7	19.3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4, B6.3.

(표 13) 고등교육비 비목별 지출비율(2001년)

(단위: %)

	전체 지출비율		운영비 지출			
	운영	자본	교사보수	직원보수	전체 보수	기타 운영
캐나다	94.5	5.5	-	-	66.5	33.5
프랑스	89.7	10.3	-	-	70.1	29.9
독일	89.5	10.5	-	-	74.8	25.2
이탈리아	83.0	17.0	42.3	21.1	63.4	36.6
일본	83.7	16.3	-	-	67.5	32.5
한국	79.5	20.5	34.2	11.1	45.2	54.8
스페인	80.9	19.1	59.9	19.4	79.3	20.7
영국	97.7	2.3	32.8	25.3	58.1	41.9
미국	89.4	10.6	31.6	35.9	67.4	32.6
OECD	88.5	11.5	42.4	22.7	67.1	32.9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4, B6.3.

## 4. 교육의 접근기회

### 가. 연령대별 취학률(2002년)

한국 3~4세 아동의 취학률은 19.6%로 OECD 67.8%보다 현저히 낮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100% 이상의 취학률을 보이는 것은, 이 국가들이 3세 미만의 아동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이다. 아동의 평생학습의 기초 형성과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교육 취학률을 높여야 한다. 한편 한국의 30세 이상 계층의 취학인구가 적은 것은 성인대상 평생학습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신호이다. 영국의 경우 30~39세 인구의 16.2%, 40세 이상 인구의 8.3%가

직업능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시간제 학습 등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다.

### 나. 다수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국

세계의 유학생들은 OECD 국가들로 몰리고 있다. 그 중에서 6개국 유학생들의 77%를 유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 영국, 호주가 강세이며, 독일, 프랑스, 일본도 인기 유학대상국들이다.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는 나라는 장차 외국인 우수두뇌를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수두뇌들이 개발도상국가들에서 OECD 국가들로 이동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고급인력들을 위한 더 좋은 보상체

〈표 14〉 취학률(2002년)

(단위: %)

	3~4세	5~14세	15~19세	20~29세	30~39세	40세~
캐나다	m	m	m	m	m	m
프랑스	119.7	101.1	86.7	19.6	1.8	a
독일	80.3	97.5	89.2	25.5	2.8	0.2
이탈리아	103.0	101.7	75.8	18.4	2.5	0.1
일본	78.1	100.8	m	m	m	m
한국	19.6	92.7	79.9	26.5	1.7	0.4
스페인	112.5	103.8	80.4	23.3	2.6	0.4
영국	81.2	98.9	76.8	26.8	16.2	8.3
미국	52.7	96.9	74.8	25.2	4.6	1.3
OECD	67.8	98.5	79.4	22.7	5.4	1.5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4, C1.2.

〈표 15〉 고등교육 외국인학생 유치 분포(2002년)

미국	영국	독일	호주	프랑스	일본	기타	합계
30%	12%	12%	10%	9%	4%	23%	100%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4, C3.2.

〈표 16〉 해외 유학생과 국내 외국인 유학생

연도	해외 유학생	국내 외국인 유학생	비율
2003	159,903명	12,314명	13 : 1
2001	149,933명	11,646명	13 : 1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년마다 집계.

제를 가지고 있어서, 개발도상국들은 물론, 영국, 독일, 프랑스 등 OECD 국가들의 우수 두뇌들마저 미국으로 흡수되는 경향이 있다. 고급인력들은 경제성장의 핵심요소이므로 우수두뇌들의 국가간 이동을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학생 13명이 해외유학에 나서지만 외국학생 1명만이 한국에 들어온다. 국내대학들을 세계수준으로 발전시켜 국내 인재양성은 물론, 나아가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의 우수인재들까지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때이다(표 16 참고)

## 5. 학습환경과 학교의 조직

### 가. 학교의 연간 수업일 수와 수업시간

한국학생들의 수업일 수는 주6일 수업 때문에 연간 220일로 연간 180~190일인 다른 나라들보다 30~40일 많지만, 연간 수업시간 수는 경쟁국들보다 오히려 적다. 연간 필수 수업시간은 OECD 평균 필수 학습시간 수에 비하여 7~8세 140시간, 9~11세 113시간, 12~14세 33시간 적다. 이는 우리 초등학교가 40분, 중학교는 45분 수업을 하여 단위 수업시간의

〈표 17〉 학교의 연간 필수학습 시간 수(2002년)

(단위: 시간)

	연간 필수학습 시간 수				연간 의도된 학습시간 수			
	7~8세	9~11세	12~14세	15세	7~8세	9~11세	12~14세	15세
캐나다	-	-	-	-	-	-	-	-
잉글랜드	861	889	870	893	890	890	940	940
프랑스	829	829	939	1018	829	829	1031	1122
독일	626	774	877	899	626	774	877	899
이탈리아	969	1020	1020	m	969	1020	1020	m
일본	709	761	875	m	709	761	875	m
한국	612	703	867	1020	612	703	867	1020
스페인	792	792	936	963	792	792	944	969
미국	m	m	m	m	m	m	m	m
OECD	752	816	900	923	788	843	933	965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4, D1.1.

길이가 짧을 뿐만 아니라, 특히 초등학생들의 수업시간 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아동들이 수업을 일찍 마치고 집에 가는 것은, 학원에 가서 시간을 보내게 하는 한 요인이다. 한국에도 취학 전 1년의 유치원교육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학교로 전환하는 적응기간이 필요하지 않다. OECD 시각에서 보면 한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업시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물론 그에 따른 교사 충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 나.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학교의 인적 구성

학습의 기본단위는 학급이다.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2002년 현재, 한국의 초등학교 평균 학급크기는 35.7명, 중학교는 37.1명으로 OECD 평균인 21.8명과 23.7명 수준보다 상당히 크다. 이렇게 큰 학급은 교사들이 개

별 학생들에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데 장애가 되며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악화시킨다.

학습환경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학생/교사 비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교사 1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많으며 고등교육의 경우 상황이 더 나쁘다. 가장 창의적이고 도제식 교육이 필요한 고등교육단계에 한국은 교수 1인당 전문대 86.1명, 대학 이상 42.8명이라는 열악한 학습환경을 가지고 있다. OECD의 경우 전문대 14.4명, 대학 이상 16.4명이다. 한국의 고등교육정책은 양적 확대에서 학습환경 개선으로 눈을 돌릴 때이다.

한국의 초중학생 1천 명당 교사비율은 42.4명으로 OECD의 72.9명보다 적다. 또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상담, 간호, 사서 등 전문적 지원인력이 한국의 경우 초·중학생 1천 명당 0.8명에 불과하여 OECD의 6.8명보다 현저하게 적으며 기타 직원도 적은 편이다. 이는 한국학교의 직원 구성이 교사 중심으로 되어 있

〈표 18〉 교육기관별 학급 크기(2002년)

(단위: 명)

	초등학교	중학교
캐나다	m	m
프랑스	22.6	24.3
독일	22.2	24.7
이탈리아	18.3	20.8
일본	28.8	34.3
한국	35.7	37.1
스페인	20.9	25.4
영국	m	m
미국	21.7	22.6
OECD	21.8	23.7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4, D2.1.

어서 수업 외 업무가 교사들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뜻한다. 교사들이 잡무에서 벗어나 수업과 수업 관련 업무에 집중하게 하려면 교사 충원 확대와 더불어 학생 지원 전문인력들도 균형 있게 충원할 필요가 있다.

다. 교사 사기 관련 보수수준

교사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수수준은 한국이 높은 편이다. 또한 최고 호봉에 이르는 기간이 37년으로 OECD 평균인 24년보다 상대적으로 길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교사

<표 19> 교육기관별 학생/교사 비율(2002년)

(단위: 명)

	유아	초등	중	고	전문대	대학 이상
캐나다	m	m	m	m	m	m
프랑스	19.0	19.4	13.7	10.6	14.1	18.7
독일	24.2	18.9	15.7	13.6	16.1	12.1
이탈리아	12.8	10.6	9.9	10.3	7.7	23.7
일본	18.1	20.3	16.2	13.7	8.4	12.6
한국	21.7	31.4	20.7	16.5	86.1	42.8
스페인	15.8	14.6	13.7	8.3	7.9	14.6
영국	26.6	19.9	17.6	12.5	18.3	18.3
미국	15.5	15.5	15.5	15.6	17.1	17.1
OECD	14.8	16.6	14.4	13.1	14.4	16.4

주: 한국 전문대, 대학 이상 자료는 2001년 기준.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4, D2.2.

<표 20> 초·중등학교 학생 1천 명당 교직원 비율(2002년)

(단위: 명)

	교수인력		학생지원	관리/품질 통제/행정		유지보수	전체 직원
	교사	조교	전문인력	관리직원	행정직원	운영인력	
캐나다	m	m	m	m	m	m	m
프랑스	70.1	m	24.4	7.3	4.0	13.9	119.7
독일	62.0	m	m	m	m	m	m
이탈리아	96.8	3.7	6.3	1.8	11.6	24.7	144.8
일본	59.0	m	5.1	5.3	4.8	6.4	80.6
한국	42.4	m	0.8	2.6	2.3	4.4	52.5
스페인	79.6	m	m	m	m	m	m
영국	49.7	m	m	m	m	m	m
미국	64.6	13.4	4.6	3.7	10.9	26.3	123.5
OECD	72.9	4.0	6.8	5.8	7.2	17.1	105.6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4, D2.3.

들의 장기근무를 장려하는 기제이며, 강력한 신분보장과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와 더불어 우수인재들을 교직으로 유인하는 체제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교사 보수수준이 비슷한 자격을 요구하는 다른 직종의 보수수준보다 낮

아 우수인재들을 교직으로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 교사들의 대규모 은퇴가 앞으로 5~10년 안에 발생함에 따라 교사 충원 자체에 어려움을 예견하는 나라도 많다.

〈표 21〉 교수 보수(2002년)

(단위: 달러 PPP<sup>3)</sup>)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임	15년차(1)	최고	(1)/1인당 GDP	초임	15년차(1)	최고	(1)/1인당 GDP	초임	15년차(1)	최고	(1)/1인당 GDP
잉글랜드	25403	39350	39350	1.41	25403	39350	39350	1.41	25403	39350	39350	1.41
프랑스	22688	30519	45031	1.12	25101	32933	47562	1.21	25563	33394	48070	1.23
독일	36934	44671	47921	1.72	38319	47165	49239	1.82	41441	50805	53085	1.96
이탈리아	22915	27726	33575	1.08	24710	30220	36906	1.18	24710	31073	38604	1.22
일본	23493	44345	56579	1.65	23493	44345	56579	1.65	23493	44372	58286	1.65
한국	26983	46400	74672	2.73	26852	46269	74541	2.72	26852	46269	74541	2.72
스페인	28161	33521	41860	1.50	31550	36930	45957	1.65	32679	38067	47323	1.70
미국	29513	42801	52104	1.18	29525	42801	51170	1.18	29641	42918	51308	1.19
OECD	22910	31366	37778	1.33	24236	33345	40177	1.37	25292	35691	42683	1.45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4, D3.1.

〈표 22〉 교사 보수(2002년)

	최고 보수/초임비율			최고보수도달 기간(연, 중)	15년 경력교사의 수업시간당 보수단기(달러 PPP)		
	초	중	고		초	중	고
잉글랜드	1.55	1.55	1.55	8	m	m	m
프랑스	1.98	1.89	1.88	34	34	52	56
독일	1.30	1.28	1.28	28	57	64	74
이탈리아	1.47	1.49	1.56	35	37	49	51
일본	2.41	2.41	2.48	31	72	86	99
한국	2.77	2.78	2.78	37	57	83	87
스페인	1.49	1.46	1.45	39	38	65	69
미국	1.77	1.73	1.73	m	38	38	38
OECD	1.69	1.71	1.73	24	38	47	54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4, D3.1.

3) 2002년의 1달러 PPP는 736원이었다.

라. 교사의 연간 수업시간

한국의 연간 수업일수는 220일로 다른 나라보다 30~40일 길다. 연간 수업주 수는 다른 나라와 비슷하지만 한국은 주6일 수업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60분으로 환산한 교사의 연간 순수업시간을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 교사는 OECD 평균과 비슷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연간 수업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들이 풍부하지 않다는 단점에 불구하고, 오늘날 국제적으로 교육체제를 비교하는 좋은 자료로 각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활용되고 있다.

OECD 교육지표로 볼 때 한국교육에서 무엇보다 급한 것은 세계수준의 대학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식집약산업과 첨단기술 산업 부문 지식경제에 필요한 고급인력은 고등교육을 통하여 양성되기 때문이다.

OECD 수준에 비하여 현저하게 뒤진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에 대한 투자확대도 절실하다. 유아교육과 보육투자는 국민들의 평생 학습 기초를 다지면서, 사회적 형평성을 높여주는 한편 유아교육과 보육분야의 고용을 창출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뒷받침하여 인구증가 없이도 노동력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6. 맺는말- 한국 교육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

OECD가 매년 9월에 발표하는 *Education at a Glance*는 일부 지표에 대하여 개별국가 가 겪는 기술적 어려움과 고등교육에 관한 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연간 학습시간 수를 OECD 평균과 비슷하게 증대하고, 그에 필요한

(표 23) 교사들의 근무시간 조직(2002년)

	연간 수업주 수			연간 수업일 수			60분으로 환산한 연간 순수업시간			연간 법정 근무시간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잉글랜드	38	38	38	190	190	190	m	m	m	m	m	m
프랑스	35	35	35	m	m	m	897	631	593	a	a	a
독일	40	40	40	189	189	189	782	735	684	1708	1708	1708
이탈리아	34	34	34	m	m	m	748	612	612	a	a	a
일본	35	35	35	193	193	193	617	513	449	1940	1940	1940
한국	37	37	37	220	220	220	811	554	531	1613	1613	1613
스코틀랜드	38	38	38	190	190	190	950	893	893	1365	1365	1365
스페인	37	36	35	176	171	166	880	564	548	1425	1425	1425
미국	36	36	36	180	180	180	1139	1127	1121	a	a	a
OECD							803	717	674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4, D4.1.

교사들을 충분히 확충하는 일도 필요하다. 특히 현재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초등학교 교사 양성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학력수준이 낮고 재교육이 필요한 시기인 45~64세 국민들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면 한국 교육체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좋은 교육체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OECD,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4*.

\_\_\_\_\_. *OECD in Figures 2004*.

중국 상하이 교통대 고등교육연구소, <http://ed.sjtu.edu.cn/ranking.htm>.

『중앙일보』, 「The Times 세계 50대 대학」, 2004년 11월 4일자.